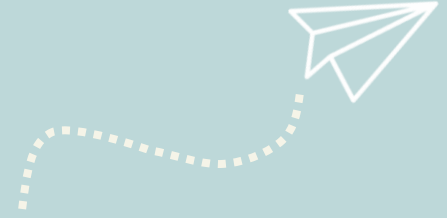


미디어이터교회 핵심가치 M5



- I. M교회가 지향하는 온전한 생명의 경지는?
- II. M교회가 추구하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경지는?
- III. M교회가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의 실체는?
- IV. M교회가 연구하여 세운 통전생명관이란?
- V. M교회가 양육하고자 하는 미디어이터란?



I. M교회가 지향하는 온전한 생명은?

1. 온전한 생명의 개념

평강의 하나님은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살전5:23)

WHO 건강 기준 : 건강이란 질병이나 병약함이 없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웰빙한(행복한) 역동적 상태이다.

- ▶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음, 온전한 생명이란 영, 혼, 육 모두가 건강한 상태
- ▶ 피조물 생명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지으신 생명을 온전케 하는 것이 제일의 뜻이고 계획이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는 생명을 온전케 하는데 있다.



2.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생명 실태

- ▶ 개인의 생명 : 영의 무지와 한계. 잘못된 정신(지·정·의의 불완정성), 불필요한 육체적 질병에 시달림
- ▶ 공동체의 생명 : 미움, 시기, 비판/자기와 다르면 분리, 배타, 분쟁/균형과 조화로운 공동체 이루지 못함

3. 영,혼,육의 온전한 생명이란?

1) 온전한 영의 상태

- ① 영의 세계를 볼 줄 알고, 성령과 악령의 일들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 지혜 지님
- ②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줄 알며, 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음
- ③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이룸

2) 온전한 혼의 상태

- ① 知 : 세상 지식은 물론 하나님과 말씀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함
- ② 情 : 화낼 상황에서 온유/교만 자랑하지 않고 겸손함/미움 시기 질투 품지 않음/예민, 소심, 우울하지 않음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담대함과 평안 유지함
- ③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 굳은 믿음 지님

3) 온전한 육의 상태

- ① 적당하고 지속적인 운동과 자세 관리로 근골 튼튼함
- ②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과 림프액이 맑고 깨끗함
- ③ 신경이 너무 둔하거나, 예민하지 않고 정확한 판단과 평안 유지
- ④ 독성, 열성 호르몬 과잉 분비되지 않고(코티졸, 카타콜라민) 좋은 호르몬 알맞게 분비(세레토닌, 도파민 등)
- ⑤ 위와 장에 담 독소 없도록 음식 조심하여 속이 청결하고 좋은 미생물 서식토록 함(대사, 해독, 면역 증진)

※ 한의학의 십병구담론(十病九痰論)-허준, 장경약



담(痰)은 몸 이곳 저곳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어 오장육부 손상을 모두 일으킬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은 먹은 것이 모두 혈기가 되어야 하나 담이 되기도 한다. 1, 2개가 소화(化)되지 못하고 굳으면 그것이 담이 되고 심지어 7,8개가 머물러 굳으면 점차 혈기가 쇠약해지고, 담은 많아져 많은 병을 만들어 낸다.

痰

- ▶ 담은 먹은 음식이 다 분해, 배설되지 못한 중간 비대사물질이 부패한 것으로 혈관과 림프를 통해 전신에 퍼지면서 만병을 유발하는 병의 근원, 서약의학에서는 밝혀내지 못한 병리 물질
- ▶ 암, 우울증, 심근경색, 치매, 두통, 어지럼, 관절, 피부, 공항장애, 당뇨, 각종 위장병, 동맥경화 뿌리

※ 그래서 담 독소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치료하면 많은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음



II. M교회가 추구하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경지는?

1. 진리로 자유함 얻기의 개념

- ▶ 진리는 바로 하나님 자체이고, 말씀임
- ▶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인생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함
- ▶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인가?
 - 1) 죄의 속박 :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 2) 인생의 멍에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하리라’

2.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최악 된 생각과 감정, 육신의 정욕)

- ▶ 우리 모두는 사탄이 심은 최악 된 감정(탐욕, 분노, 두려움, 교만, 시기, 미움, 좌절, 우울 등)으로 속박됨
- ▶ 성령 안에서 탐욕, 미움, 시기, 질투, 두려움, 근심, 걱정, 좌절, 분노, 조급함, 우울, 불의에서 자유로워지고 오직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의와 평강과 능력의 삶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함

◆ 최악 된 감정으로부터 자유함의 예 ◆

스트레스 환경	기존 반응	성령 안에서 자유함
나를 공격하고 손해 끼침	분노, 미움	온유
세상 성공, 돈, 명예, 권력	교만, 자랑	겸손, 절제
슬픔, 좌절, 실패	두려움, 우울	희락, 평안
수 많은 유혹	탐욕과 흔들림	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음

3. 인생의 멍으로부터의 자유

▶ 일이나 삶의 부담을 예수님께 내려 놓음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 예) 병원 운영으로부터의 자유

: 주님께 맡겼으니 병원 일 이제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No. 믿음으로 자유로워지는 경지는 병원 일로 근심, 걱정, 두려움, 조급, 욕심에서 초월함을 의미함. 뜻, 계획 혼자 세워 힘들어 하지 말고 주님과 상의하며 진행하라는 것. 당연히 병원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최선 다하고, 더 나아지고 바르게 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일들은 찾아 노력해야 한다.



4. 한국교회의 실태

1) 특급 호텔에 초대된 두 노숙자의 반응. 둘 중 누가 이 호텔에 어울리겠는가?

- 한 노숙자는 깔끔하게 목욕 하고 방에 머무름
- 다른 노숙자는 예전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방에 머무름



2) 후자의 노숙자 이렇게 행동한 이유

- ① 새로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지 알지 못함
- ② 예전의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함
- ③ 예전의 삶의 모습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의 갈망이나 의지가 없음

▶ 이런 상태가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옛 자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빛과 진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



III. M교회가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은?

1.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일3:14)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일3:10)

- ▶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것
- ▶ 사랑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것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춰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필수 덕목임

2.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사랑 실태

- ▶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 세상으로부터 위선자로 낙인 찍힘
- ▶ **왜 이렇게 되었을까?**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이나 실체를 알기 어려움
2) 하나님 사랑 실천 어려움(원수를 사랑하라,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등)

3. 하나님 사랑의 개념과 실체(1)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고전13:1)

- ▶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은 최고의 아가페적 사랑인데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무엇인가가 있음을 알 수 있음

4. 하나님 사랑의 개념과 실체(2) - 사랑은 율법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

- ▶ 사랑은 율법이다. 즉,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종의 선택사항이 아닌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며, 다른 어떤 계명보다 첫째라는 것

사랑을 왜 감정이 아닌 율법 차원에서 강조하셨는지

그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 사랑의 핵심을 찾을 수 있음

“사랑을 율법이라 강조하신 이유”

- ▶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신 피조물들, 즉 인간의 생명과 교회, 사회와 같은 공동체, 자연과 우주가 가장 아름다운 생명성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명 원리라는 것
- ▶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모든 유기적 공동체가 분열과 파괴로 갈 수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생명과 자연 지킴의 원리이기 때문에 율법적 차원에서 다룬 것임
- ▶ 결론으로 사랑은 인간, 자연, 우주, 교회, 기업, 가족 모두 온전한 생명 유기체로 세워 나가는 생명법칙

생명을 온전케 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섭리가 사랑이다.

생명 섭리의 근본정신이요, 나보다 전체를 살리는 공동체의 정신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당신은 이미 사랑의 인물이 되는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라는 인간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다.

5. 하나님 사랑의 개념과 실체(3) -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 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일 4:7)

- ▶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가 아님 / ‘하늘 만큼 땅 만큼’ 같은 양적이란 뜻이 아님.
즉, 조건적이거나 상대적이지 않다는 것임
- ▶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사역, 행태 등 그 자체가 사랑이란 뜻

※ 우주와 자연을 비롯한 피조물의 운영섭리, 인간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짐을 의미. 그래서 구약과 신약 시대 하나님의 행동 양태 분석해서 하나님 사랑의 특징과 실체 알아냄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 ▶ 여리고 성 함락 당시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도록 하심/아간의 실수를 봐주시지 않으시고 수천 병력이 죽도록 벌하심/이스라엘 민족이 육체적 항락과 부패에 빠졌을 때 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심
⇒ **잔인하고 매정한 하나님.** 이는 죄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을 방지하시기 위함
- ▶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과 기근에 죽고 칼로 도륙 당하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심/이방인들과 바벨론이 아닌 예루살렘을 심판하심. ⇒ **자기 백성에 더 엄격하신 하나님.** 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함(한국교회를 세계 선교 중심으로 삼기 위해 더 엄격히 벌하실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함)
- ▶ 하나님은 자녀들이 우상을 섬길 때 질투하시고 맹렬히 분을 내신다.(출 20:5)
⇒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 되면 멸망으로 가는 것임을 경계하심

징벌과 질투는 오직 선이며 진리이고 생명이신 당신만 따르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 징벌 속에도 긍휼과 용서가 준비되어 있고, 끝내는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결국 하나님 사랑은 인간을 선으로 이끌고, 진리 수호하며, 생명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 방식이고 섭리임

우리는 1번만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 사랑의 일부이다.



2번도 하나님 사랑의 일부이다.



3번은 하나님 사랑의 큰 부분이지만 이것도 전체는 아니다.



4번은 하나님 사랑의 궁극이고, 생명 열매의 종점이다.



◆ 변화 ◆

- | | | |
|-------------|---|--------|
| • 죽음 → 생명 | ➔ | • 자기변화 |
| • 사탄 → 하나님 | | • 이웃변화 |
| • 어둠 → 빛 | | • 사회변화 |
| • 불의 → 진리 | | |
| • 어리석음 → 지혜 | | |
| • 약함 → 강함 | | |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IV. M교회가 연구하여 세운 통전생명관이란?

1. 통전생명관의 개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 이다 (시 139:12)

- ▶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을 온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생명 섭리.
인간의 생명을 영과 혼과 육이라는 3 요소로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은 3 요소 모두를 고려한 온전한 생명 구현에 맞춰져 있음
- ▶ 서로 다른 생명 구성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상호 소통과 협력으로 시너지를 이루면서 더 아름답고 온전한 생명체를 이루는 원리
- ※ 이것이 죄악과 어둠에서 온전한 생명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생명 원리이며, 주님의 통전 섭리임.
모든 가치와 요소는 서로 떨어지지 않고 소통되며 전환 가능함

2. 교회에서의 이분법적 사고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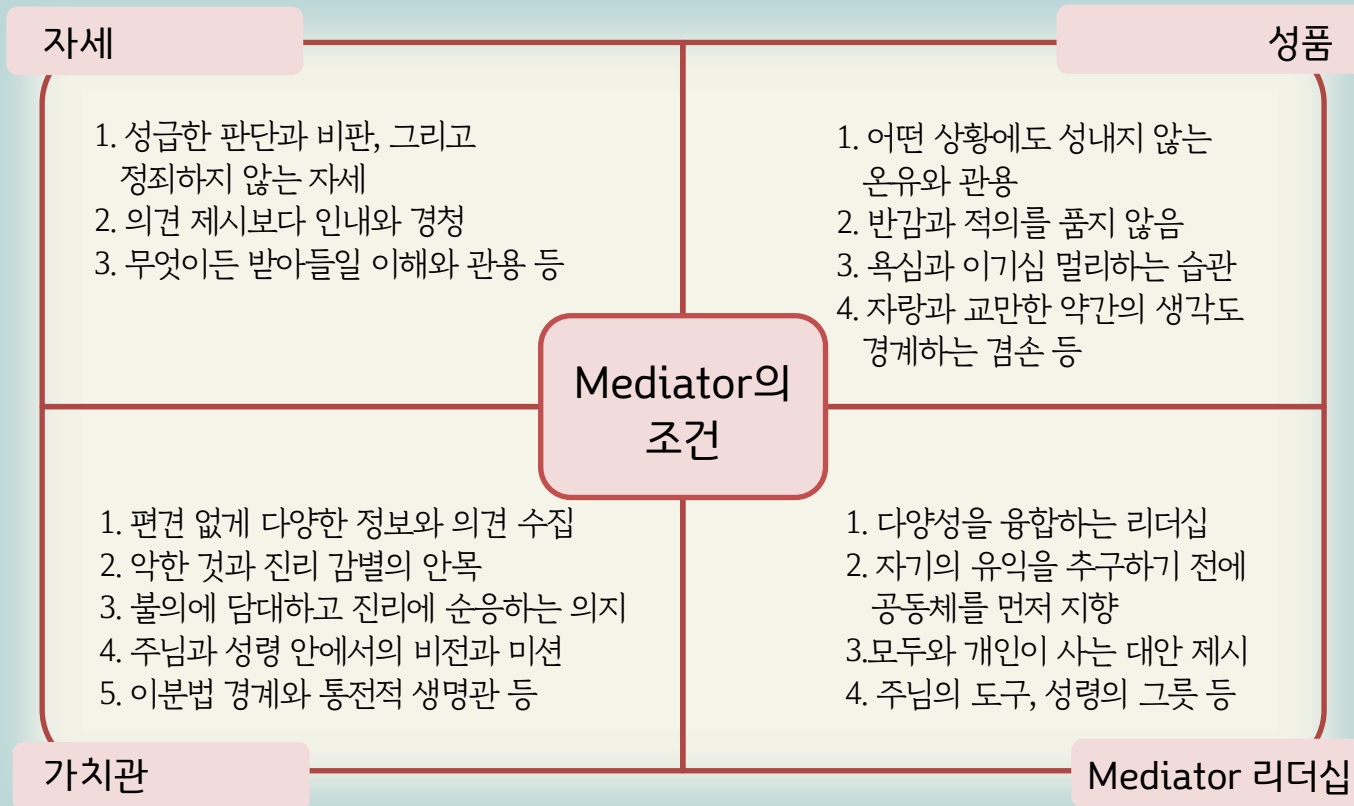
- ▶ 영 위주의 신앙에 치우치고 감정과 육체의 변화는 이루지 못함
- ▶ 말씀 따로 삶 따로 분리 현상으로 위선적 신앙생활에 빠짐
- ▶ 다르면 배타하고, 분리하면서 사회 변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성장에만 매달림



V. M교회가 양육하고자 하는 미디어이터란?

- ▶ 서로 다른 요소(하늘과 땅, 세상과 교회, 보수와 진보, 사용자와 노동자 등)의 이분법적 분리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예수님(The Mediator)처럼 상호 소통 융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가는 중간 역할자(a mediator)

□ 미디어이터의 모습



핵심가치 M5 실현방안



- I. M교회가 지향하는 온전한 생명을 이루는 방법
- II. M교회가 추구하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방법
- III. M교회가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방법
- IV. M교회가 연구하여 세운 통전생명관을 이루는 방법
- V. M교회가 양육하고자 하는 미디어이터가 되는 방법



I. M교회가 지향하는 온전한 생명을 이루는 방법

1. 온전한 생명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

1st. 인간의 생명을 질병과 사망으로 이끈 원죄 찾아야 함

1) 인간의 구성 요소인 영, 혼, 육 중 죄의 시발이 된 영역은? : 혼(정신영역)에서 비롯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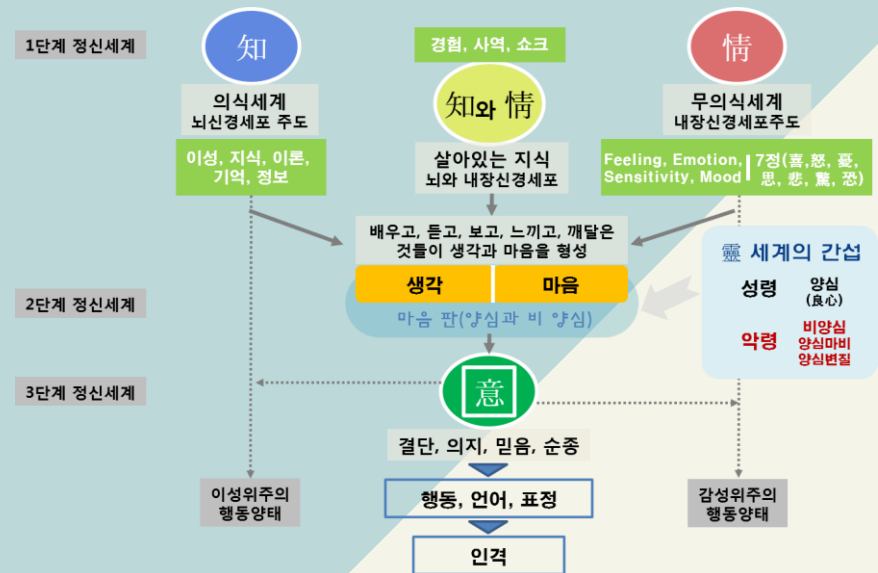
이유는? 육과 영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당신 것을 주셨지만, 인간의 자율적 의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인간에게 맡기신 혼에 허물 있었고 그것이 죄의 채널 역할 함

2) 혼의 구성 요소인 지, 정, 의 중 더 근원적으로 죄의 역할을 한 요소는?

정신활동 구도와 죄의 시조인 하와의 행동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음

2-1) 정신활동의 구도

- ▶ 知는 뇌 중추신경에서 발현 / 情은 오장육부의 내장신경에서 발현 / 서로 상호관계를 이룸
- ▶ 知는 생각, 情은 마음이라는 다음단계 정신세계 형성
- ▶ 생각과 마음이 意로 이어지기 전, 靈의 세계의 간섭을 받음 (성령과 악령)
- ▶ 意는 최종 정신 요소로 행동, 말, 표정으로 이어지며 이것이 반복되어 인격 형성



2-2) 하와의 행동 분석(성경 인용)

- ① 정신영역 자극 - 하와의 생각을 떠 봄
- ② 知 - 하와는 바른 정보를 갖고 있었음.
- ③ 새로운 知- 하나님 거짓말 한 것, 죽지 않음, 하나님과 같게 된다는 거짓 정보 줌
- * 여기까지 하와는 아직 최악 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음
- ④ 情 - 먹기 좋고 보기 좋은 탐스럽게 느낌. 탐욕 발생, 하나님 말에 일말의 부정적 느낌 들기 시작
- ⑤ 마음과 생각 - 먹고 싶은 마음 생기면서 하나님 말씀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뀜.
- ⑥ 의지 - 한 번 따먹어볼까 의지의 욕구가 생기면서 먹기로 결정함
- ⑦ 행동 - 실제 따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죄를 전염시킴
- ⑧ 인격 -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죄의 그릇으로 변모

이를 통해 인간이 질병과 사망의 존재로 된 것이 최악 된 감정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음
탐욕 감정이 불순종과 교만을 이끈 첫 단추이고 죄와 사망의 근원임
위선도 걸은 경건 하지만 속이 미움, 시기, 질투,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진정한 의인이 되고 건강한 생명을 위해 감정이 바뀌어야 함

※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도 최악 된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만약 최악 된 감정을 극복 못하면 하와와 차이가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선악과
같은 세상 상황에서 하와처럼 최악 된 감정과 행동을 선택하지 않는 존재로 이끄는 것임

2. 감정의 새로운 인식과 중요성

- ▶ 감정이 바르게 조절돼야 온전한 생명을 이룰 수 있지만 대부분 감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그 동안 학자들은 뇌에서 진행되는 의식 세계만 알고 내장신경에서 진행되는 감정 같은 무의식 세계는 몰라 뇌에만 초점을 맞춘 지식위주 학습과 말씀 공부도 그렇게 하다 보니 감정 같은 무의식영역은 변화가 없었음. 그래서 말씀에 대한 생각과 지식은 탁월한데, 감정은 더러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된 것

- ▶ 감정, 무의식 세계에 대한 의학적 이론

- 1) 그 동안 감정을 포함한 모든 정신활동은 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옴
- 2) 한의학은 오래전부터 뇌보다 몸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그 동안 의학에서 몰랐던 오장육부 내장신경에서 정신 요소 중 감정이 발현된다고 설명함. 생각, 지식, 이론, 기억 등 의식 세계는 뇌 중추신경계에서 담당하지만 **감정과 무의식세계는 오장육부 내장신경계에서 담당**한다는 것
감정은 생각에 앞서 무의식적으로 발현된다.
- 3)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대할 때 느낌이 먼저인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지식이 먼저인가?
그 사람이나 장소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대부분 탁 봐서 느끼는 인상이나 감(感)같은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솟아오른다. 이처럼 Feeling, Emotion, Mood와 같은 무의식적 감정이 지식이나 마음, 생각보다 먼저 발현되고, 모든 정신활동의 시발 요소이다.

- ▶ 뇌와 의식세계만을 강조하는 과학의 오류(감정에 대한 인지과학자들의 새로운 주장)

최근 인지과학자들이 뇌의 의식세계가 먼저냐 몸의 무의식세계가 먼저냐에 대한 연구에서 감정, 즉 무의식세계가 정신활동의 주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의식적 사고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무의식적 사고가 모든 사고의 95%라는 것이 인지과학자들 사이에서 경험상의 일반 원리로 통하지만 그것도 심각할 정도로 과소평가한 것이다. 더욱이 의식적 인식의 표면 아래에 있는 95%가 모든 의식적 사고를 형성하고 구조화 한다.” -쥘리 레이코프-

- ▶ 이제는 감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말씀 교육에 있어 감정과 무의식세계에도 포커스를 두고 최악 된 감정을 성령의 감정으로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문제는 생각은 변화되기 쉽지만 감정은 변화되기 어렵다. 우리가 어떤 생각 갖고 있다가 더 좋은 생각 생기면 뇌세포에서 그것을 바꾸지만, 감정은 잘 변하지 않는다. 어릴 때 감정 트라우마 있으면 죽을 때까지 안 변하듯 어렵다. 앞으로 이 감정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것을 우리가 같이 노력 해볼 것이다.

3. 감정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학적 분석

1) 감정과 육체와의 관계

감정 흐름과 실체를 알게 되면 그 동안 막연하게만 여겼던 감정을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안목과 조절하는 방법도 터득하게 됨. 그 동안 묻혀 있던 이론인데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감정은 오장육부에서 발현된다.’ 주장함. 뇌 과학자들은 모든 정신활동은 뇌가 처음과 끝을 관장한다고 주장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정신 및 육체활동에 있어 오장육부가 먼저이고 오장육부가 종점이라는 것. 오장육부의 내장신경이 정신기능을 수행하는데, 뇌는 오장육부의 내장신경이 보내준 감정 정보를 받아 입력하고 입력된 기존 정보들을 종합하여 판단해서 이를 다시 오장육부에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순서로 따지자면 뇌보다 몸이 먼저이고, 정보의 발원지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 4:23)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 7:38)

생명의 근원이 뇌가 아닌 배, 즉 복부라는 것인데, 오장육부의 감정을 잘 지키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면 감정이 어떻게 배, 즉, 오장육부에서 흘러나오는지 한의학의 이론을 살펴보자.

- ▶ 몸에 비위, 폐, 심장, 간장, 콩팥의 오장 있는데 그 동안 오장의 육체적 기능만 알았지, 정신 기능은 모름
- ▶ 한의학은 오장육부 조직세포 속에 기쁨(喜), 노여움(怒), 근심(憂), 생각(思), 슬픔(悲), 놀람(驚), 두려움(恐)이라는 7가지 감정(七情)이 존재하면서 조직세포와 융합하여 오장육부의 육체적 활동을 운영한다고 주장한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융합된 형태이다.

서양의학은 오장육부에 정신기능 없고 조직세포 개념 위주

반면 한의학은 오장육부에 정신기능이 있음을 제시함으로 心身合一의 토대 이름

두 장기의 예를 들어보자.

1) 간장에는 노(怒)라는 감정 내재/간의 생리기능은 해독, 면역, 대사, 성장과 발육 기능. 섭취한 모든 독소나 세균 제거(해독과 면역)/A 물질을 몸에 맞게 B 물질로 바꾸는 물질 변환(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지방을 콜레스테롤)/성장 발육 추진(잘라도 다시 자람) 이렇듯 간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며 강함. 간의 공격적 기능 수행키 위해 하나님은 우울이나 두려움 감정이 아닌 怒라는 강한 감정 간에 심은 것. 그래서 怒는 간 기능을 수행하기에 중요한 감정이다. 실제 怒 감정 있어야 불의와 악한 것 물리치고, 추진력 생겨 성장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문제는 怒가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최악 된 怒가 되고, 병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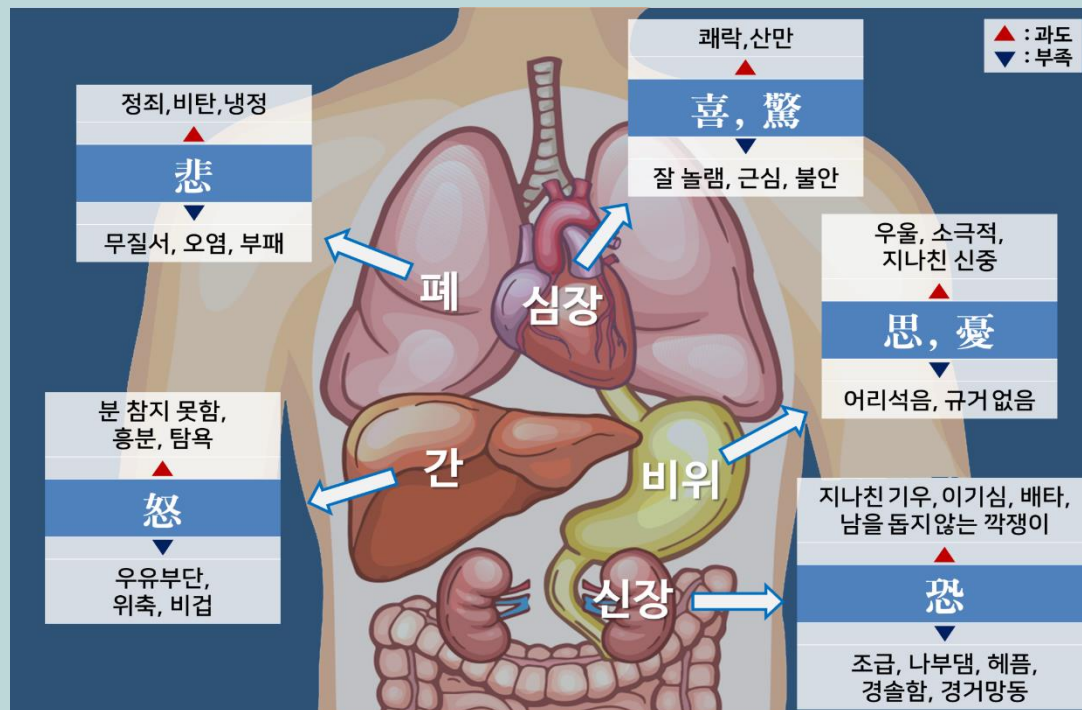
怒가 지나치면 분 못 참고, 흥분 잘하고 탐욕 심해지면서 독하고 열한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어 혈압 올리고 뇌와 심장 공격하며 위장을 해친다. 반대로 怒가 부족하면 비겁해지고 정신 위축 현상이 나타나 우유부단, 배짱 없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 되어 누가 악한 짓 해도 모른 척 하거나 비겁하게 숨는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의로운 일을 추진할 때 빠진다. 노가 부족한 사람들은 담즙분비도 안되고, 소화도 안 되며 체력도 떨어지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진다. 이렇듯 怒는 에너지는 좋은 것이지만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죄의 감정을 드러내 면서 질병도 발생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육신의 정욕이란 각 장기가 지니고 있는 감정의 생리적 감정 편차를 말하며 성령님과 함께 조절하는 대상이다.

2) 신장은 공(恐)이라는 두려움 감정 내재/서양의학은 신장을 오줌 걸러내는 장기로 설명 하지만, 한의학은 콩팥의 제일 기능이 남성 정액, 여성 생식 관련 호르몬 만들고 자동차 엔진오일 같은 일체의 진액 만들어 저장 했다가 전신에 공급한다고 설명한다. 신장이 저장하는 진액은 섭취한 음식으로부터 만들어진 각종 영양물과 혈액을 한 번 더 여과, 추출한 정수(精髓) 물질이다. 안구 건조 되면 눈에 진액 공급/무릎 많이 써서 관절액 마르면 관절액 공급/뇌에도 진액 공급해서 치매 막음/장 보호 점액/폐 기관지와 인후의 면역 점액/신경 조직, 피부 조직을 윤택하게 한다. 그래서 신장 진액이 고갈되면 뇌세포 위축, 퇴행성 관절, 안구 건조, 만성 기침, 위축성 위염, 갱년기 장애, 노화 촉진, 피부 건조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진액을 저장할 때 두려움 정신을 가지고 한다는 것. 생리적 두려움은 怒와 달리 조심스럽고 스스로 낮추는 겸손과 인내의 감정 에너지로 미래 걱정하면서 내실 기하는 속성을 가지고 좋은 물질을 신장에 저장해 놓는다. 어려울 때 대비해서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것과 같은 정신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진액을 충분히 마련해두기 위해 신장에 두려움의 감정을 심은 것이다.

그래서 생리적인 두려움은 좋은 것이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경외하고, 겸손 하며, 미래를 예비할 줄 안다. 문제는 두려움이 지나치면 사람 만나는 것 싫어하고 매사에 기우와 배타와 강박에 빠진다. 균 윽길까 봐 손을 씻고 또 씻는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각쟁이 되어 남한테 돈과 물질 쓰지 않는 이기적이 된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 여기신다. 이것도 육신의 정욕이다. 반대로 두려움이 너무 없으면 경거 망동하고 나불대고 경솔하고 헤프게 된다. 이 또한 육신의 정욕이다.

3) 위장은 사(思)의 정신 내재. 그 외 심장은 희(喜), 폐는 비(悲)의 감정 지님. 이외에 경(驚)은 심장의 부수적인 감정으로 산(散) 에너지 지니면서 심장 활동 돕고, 우(憂)는 울(鬱) 에너지로 위장이 경거망동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돕는다.

“오장육부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칠정)과 육신의 정욕”



2) 육신의 정욕의 바른 이해

① 육신의 정욕에 대한 오해

육체에 대한 기독교의 생각은 대체로 부정적이고 죄악시하는 경향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말씀에 근거하다 보니 몸은 더러우며 죄의 근원이어서 몸으로 낙을 누리선 안 되고, 몸을 괴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오해는 신학에서 육신을 조직 세포로만 인식하고 육신 속에 감정이 존재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 肉身의 情慾이란 문자를 살펴보면 육신에는 정욕(情慾), 즉, 감정과 욕구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했던 육신의 대상은 조직세포학적 개념의 육체가 아니라, 바로 육신에 존재하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육신(肉身) = 육체(體, 조직세포) + 감정(感情, 오장육부 세포에 내장된 특유의 정신)

② 육신의 정욕은 성욕, 음란, 탐욕만이 아니라 살펴본 바와 같이 오장육부 육체에 내재되어 있는 일곱 가지 감정, 즉 喜·怒·憂·思·悲·驚·恐(七情)이 과잉 되거나 부족해서 발현되는 일체의 감정이다.

③ 육신의 정욕의 종류와 그로 인한 질병

기쁨, 분노, 슬픔, 우울, 두려움, 놀람 등이 그 자체로 악한 것 아니고, 생리적으로 작동하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생명 요소. 단지 스트레스 등 원인에 의해 육신의 감정이 과도하거나 위축되면 죄악 된 감정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이런 죄악 감정은 곧바로 육체 질병으로 이어짐. 예로 심장의 희(喜) 감정 과하면 심한 불안, 초조, 쾌락으로 이어면서 갑상선 기능 항진, 심장기능 약화, 근 무력 등 질병 만듦. 반면 喜가 부족하면 우울, 부정, 미움, 슬픔 등 문제 나타나면서 협심증, 불면, 빈혈, 불안신경증 등 질병을 만듦

위장의 사(思)와 우(憂) 과하면 기우, 집착, 우유부단, 근심, 걱정, 우울하면서 우울증, 신경성 위장, 유선 분비 장애와 유방질환 등 만듦. 부족하면 경솔, 조금 산만 하면서 막 먹어도 소화 잘 되고, 혈액과 림프액 혼탁 해져 각종 전신질환 발생(피부병, 당뇨, 비만, 관절, 두통, 건망증, 치매, 구취, 근육통 등)됨. 이 모두가 육신의 정욕

오장육부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의 과불균을 성령님과 함께 조절하는 훈련을 하면
 혼의 건강을 이룰 수 있고, 이는 전인 건강의 시작점이 된다.

“오장육부 감정이 과해서 나타나는 악한 품성과 그로 인한 질병”

오장육부 감정이 과해서 나타나는 악한 품성(비움의 대상)	주관 장부	유발되는 질병
노(怒)의 계열(↑) - 분노, 탐욕, 조금, 분쟁, 참지 못함, 흥분, 능욕, 공격적, 음욕 과다, 악독, 포악	怒 (간장 - 뇌)	고혈압, 두통, 어지럼증, 항강, 중풍, 눈 질환, 위 십이지장궤양, 화병, 바세도우씨병
비(悲)의 계열(↑) - 미움, 시기, 질투, 비판, 정죄, 무자비, 냉정, 비탄, 슬픔에 잠김, 즐거움과 쾌락 혐오, 강박	悲 (폐 - 뇌)	강박신경증, 염세주의, 유방암, 갑상선 질환, 자궁 질환, 협심증, 신경성 위장병, 변비
공(棼)의 계열(↑) - 지나친 두려움, 기우, 깍쟁이, 이기심, 교제 않고 혼자 있기 좋아함, 나서지 않음, 베풀지 않음	棼 (콩팥 - 뇌)	파킨슨, 무성욕자, 임포텐스, 전립선질환, Neurosis, 이명
희(喜)의 계열(↑) - 자랑, 교만, 가식, 거짓, 외식, 즐거움과 쾌락 좇음, 산만	喜 (심장 - 뇌)	갑상선 기능항진, 심장기능 약화, 근 무력, 체중감소, endorphine 과잉 분비
생각(思)과 우울(憂)의 계열(↑) - 지나친 생각, 근심, 걱정, 우울, 짜증과 귀찮아 함, 부정적	思와 憂 (위장 - 뇌)	우울증, 신경성 위장병, 갑상선 기능저하, 유선분비 장애로 인한 유방질환, 생리통

“오장육부 감정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악한 품성과 그로 인한 질병”

오장육부 감정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악한 품성(비움의 대상)	주관 장부	유발되는 질병
노(怒)의 계열(↓) - 비겁, 위축, 소극적, 우유부단, 성욕저하, 비활동적, 우울,	怒 (간장 - 뇌)	담즙분비 저하, 담석 好發, 육류 소화 장애, 지방간, 간 대사 장애, 만성피로, 면역, 해독 기능 저하
비(悲)의 계열(↓) - 질서와 규거 없음, 무 분별, 과도하게 기뻐함, 지저분함, 부패, 방탕, 악과독 방치	悲 (폐 - 뇌)	배변장애와 변비, 호흡이상, 천식, 활성산소 증가, 체내 노폐물 증가
공(恐)의 계열(↓) - 경솔, 나부뎀, 교만과 자고 함, 미래 예비없이 허랑 방탕.	恐 (콩팥 - 뇌)	몸의 진액기능 감소(뇌척수액과 관절 액 등), 생식기능 저하, 조루증, 단명(短命) 우려, 체중감소 등
희(喜)의 계열(↓) - 놀람, 매사에 근심, 걱정, 우울, 긴장, 예민, 부정적, 긴장, 공한 성격, 짜증 잘 냄	喜 (심장 - 뇌)	협심증 등의 심장병, 불면, 빈혈, 불안, 신경증 순환장애로 몸이 차고 저림증, 공항장애 등
생각(思)과 우울(憂)의 계열(↑) - 어리석음, 조급, 신중 하지 못함. 폭식, 과식, 독성 음식 등의 분별없는 식사	思와 憂 (위장 - 뇌)	막 먹어도 소화 잘 됨, 혈액, 림프액 탁해져 각종 전신질환 발생(피부병, 당뇨, 비만, 관절, 두통, 어지럼증, 건망증, 치매, 동맥경화, 구취, 항견통 등)

4. 성령님과 함께 육신의 정욕 조절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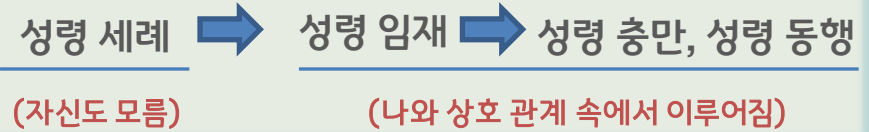
1) 성령 임재와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간혹 ‘성령님’ 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경우 있는데

소리 지른다 해서 성령이 오신다 생각지 않는다. 절대 권능의 신과 함께 사는 게 어려운 것이다.

성령 세례 이후 성령 임재와 충만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1st. 먼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영의 세계 인지해야

성도들 삶에서 성령님이 절대적인 것은 알지만, 인간의 눈과 생각으로 영의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 성령 동행의 삶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저 보고 들을 수 있는 세계관이 전부인 동물과 달리 영적인 인간이 영의 세계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 이제 하나님 자녀라면 내면에 존재하는 영의 세계를 발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감지해서, 분명히 존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영의 세계와 흐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 2:7)



▶ 코로 하나님의 영을 주입하심

- 하나님의 靈氣가 코와 기관지 폐를 통해 온 몸에 주입(마치 신선한 공기 마시면 상쾌함 같은 氣 흐름 느낄 수 있듯 성령 임재도 氣의 유입 순환과 같은 느낌과 유사)
- 느낌과 感知(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는 1차 채널)

하나님의 영이 코를 통해 기관지와 폐를 거쳐 전신 세포에 공급되었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세포 속에는 영의 기운이 깃들여 있는 공간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우리 몸속에 착 퍼져 있는 것이다. 이제 눈에 보이는 조직, 세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함’ 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몸에 막힌 영맥을 뚫고, 성령에 感應(감응)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한다.

2nd. 성령님 알기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①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아야 강한 믿음과 능력이 발현되고 ②성령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일궈 나가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성령님의 기능(어떠한 분 이신지)”

(1) 보혜사(나를 도와주려고 걱정하고 절대 권능자인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심)

: 이끄심/세우심, 더 크게 쓰심/상당해주시고 가르쳐 주심/아플 때 치료해 주심/어렵고 힘들 때 도와 주심 / 하나님께 탄원해주시고, 중보해 주시며 변호해 주심

(2) 지(知),정(情),의(意)를 가진 인격체

성령님은 신이지만 인간적이란 것. 너무 높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신으로써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레벨로 내려오셔서 부모, 형제, 친구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인간과 대화도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 이해도 하시고 삶의 고통과 고난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가르치시고 권고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가 잘되도록 키우시고 세우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

(3) 전지전능하신 절대권능의 능력자

- ① 창조사역에 참여(성령 사역은 구약에서 간헐적으로 드러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 1:2)

- ② 예수님의 지상 강림과 구원사역 시작점에서 전면제 등장
- ③ 예수님이 공적인 구원사역을 나설 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 3:17)

- ④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일에 동역함
- ⑤ 예수님 승천 후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

- ① 성화 : 천국사람에 합당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
- ② 영적싸움 : 사탄의 공격에서 영적 승리를 위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엡 6:12)

- ③ 어려운 세상 삶 이겨 나가게 하심
: 살면서 장벽/좌절, 두려움, 고난/도전과 모험/주위의 공격/사탄의 공격 등을 극복하게 도우신다.
- ④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케 하심

3rd. 성령님 느끼기(몸과 마음으로)

▶ 유명한 선교사 성령 아닌 내게 임하시는 나의 성령 찾아야 함. 이를 위해 성령 존재 느끼기 훈련 필요

- ① 내 주위에 성령님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느끼기
- ② 그 분은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신 분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기
- ③ 그 분은 나를 돕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심을 믿기. 따뜻한 미소로, 자비로, 엄격한 얼굴로, 같이 기뻐도 하시고, 슬퍼하시고, 들어 주시고, 이끄시고 등 모습으로.

※ 이 길이 참 생명으로 덧입는 길이고, 참 진리를 얻음으로 자유케 되는 길임

“인간의 영의 세계의 변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투쟁하는 영적 전쟁터가 되었다. 그렇기에 사탄의 영에 밀리지 않고 성령 임재하시고 충만하시도록 매 순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야 한다.

4th. 성령님 보기(실제 삶에서 그의 손길을)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

- ① 신비한 기운 같은 것이, 주위에 채워진 공기처럼 떠다니시며 공간 초월해서 활동(온통 내 주위에 계심)
- ② 눈으로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냄새를 느낄 수 없다.
- ③ 공기 아닌데, 공기 같다. (단 물리/화학적 성분이나 성질 분석할 수 없는 초과학적 존재)

- ④ 바람이나 물, 불, 비둘기로 비유되는 모습으로 활동하신다.
- 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과 지혜가 내재되어 있음
- ⑥ 사람 생각, 마음, 감정, 육체 생리 기전에 영향 주심. 내주하시면 생각, 마음, 감정이 변화됨
- ⑦ 육체에의 작용은 구조나 물질 자체 변화보다 시스템이나 기능, 생리활성에 영향 줘서 구조 변화를 이끔
- ⑧ 성령님을 절실한 마음으로 부르면 내주하심
- ⑨ 성령님이 원하시는 내면이 아니면 나가심
- ⑩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내면일 경우는 충만하심
- ⑪ 성령님은 단독으로 사역하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르심

2) 육신의 정욕 중 자신에 해당되는 죄를 찾아냄

두 번째, 많은 육신의 정욕 중 자신이 쉽게 빠지는 죄 찾아냄. 양심의 눈 작동시키면 그 동안 자기만 알던 내면의 죄들 모처럼 보이기 시작. 슬쩍 넘어간 사소한 나쁜 감정. 모른 척 내려놔던 자랑, 교만, 미움, 분냄, 비판, 정죄, 거짓, 탐욕 등이 드러날 것임. 이것이 외면보다 속 보시는 심판자의 관심사이고, 이것이 당신의 들보. 모든 육신의 정욕 한번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가지, 또는 한 가지라도(예, 자랑이나 교만 등) 성령과 해결하는 노력 경주하자. 하나님 기준에서 자기 죄 심찰하면 얼마나 많은 죄를 품고 있는지 모른다? 바빠진다. 성령님은 이런 노력 기뻐하시고, 고쳐서 우리를 성령의 생명 법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조건**은 ①슬쩍 넘어갔던 자기 내면의 죄 인지하고 자꾸 찾아야 함 / ②이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는 절실함과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 가짐 / ③성령님이 도와 주시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다는 절실함과 함께 하시면 완고한 내면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의뢰 / 그리고 ④은밀한 가운데 성령님과 해결해 나가는 부단한 노력과 실천 자세이다.

성공적인 훈련을 위해 조용한 가운데 침묵(vs 명상)을 권하고 싶다.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성령님과 대화와 교제의 경험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3)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성령님께 내려놓음

이제 찾아낸 내면의 죄악이나 들보를 성령님께 꺼내 놓는다. 미움, 분냄, 교만, 시기나 질투, 조금함, 욕심, 콤플렉스, 음란, 거짓, 서운한 마음 등을 성령님과 제거작업 하는 것이다. 경건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럽고 지저분한 기도**가 필요할 때다. 자신의 치부를 믿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 밖에 없다. 사람으로부터는 해결 받을 수 없고, 이용 당할 수 있다. 성령만이 최고의 치료자이시고 카운슬러이시다.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분한테 내려놓아라. 예로 ‘성령님 오늘 교회 아동부 회의에서 모 권사로부터 집사님 때문에 아이가 교회 안 나온다니면서 공개적으로 핀잔 받았어요. 마음에 상처가 커 교회 나가기 싫고, 그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누가 경우 없는 행동을 마구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요.’ 등, 다 꺼내놓으라. 성령님께 그것을 내어 던지고 자신은 성령 안에서 평안을 얻으라. 이러한 기도를 평생 하라. 바로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의 조건이다.

4) 일상화 하라(매사에 성령님과)

성령님께 자신의 감정과 간구를 항상 말씀드려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모두. 뭘 하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성령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과의 기도는 친구와 술자리에서도 노래방에서도 할 수 있고 쉬지 않고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성령과의 소통이다.



II. M교회가 추구하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방법

1.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육신의 정욕 극복하기 내용과 동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2)

1) 오장신경에 사탄이 입력한 감정 코드(죄와 사망 법) 꺼내고 선한 감정(생명의 성령 법) 치환

오장육부 내장신경에 코드화 된 감정은 뿌리가 깊어 빼내기 어려움(시험에 대한 결단 절실)

- ▶ 시험 : 몸 신경계에 입력된 죄 성 코드 치환 초기에는 기존 감정 코드로부터 심한 저항을 받음..
- ▶ 결단과 극복 : 코드화 되어 이전처럼 반응했을 최악 된 감정 표현을 강한 결단으로 제지

2) 십자가에서의 비움과 채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 2:20)

- ▶ 죽어야 새로운 생명 받아들일 수 있음 (비움은 죽는 것 / 채움은 새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 ▶ 십자가 사건을 매 순간 삶에 연계해야 함
 - ① 우리의 죄를 전가 받은 속죄양 되신 예수님을 연상
 - ②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장면을 우리의 죄를 못 박는 것으로 연계
 - ③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확신하며 실천함

3) 성령 안에서 훈련 (p42 성령 임재와 동행 참조)

- 1st. 우리 몸에 존재하는 영의 세계 인지
- 2nd. 성령님 알기
- 3rd. 성령님 느끼기(몸과 마음으로)
- 4th. 성령님 보기(실제 삶에서 그의 손길을)

2. 인생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방법

(p14 인생의 멍에로부터의 자유 참조)

3. 진리의 말씀을 체득하는 방법

- ▶ 말씀을 뇌 신경에만 입력하지 않고, 오장육부의 내장신경까지 이입하고
지식영역 뿐 아니라 감정과 정서 영역까지 주입하는 교육법 적용
- ▶ ‘통전적 교재 + 통전 교육’ 방식으로 말씀을 교육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V. M교회가 연구하여 작성한 통전적 교재와 통전 교육 적용 방법’ 참고)

* 진리를 향한 구도자 삶은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즉각 터득 되고, 변화되는 것 아님.
주권적인 하나님의 특수한 경우 있지만,
내면의 죄에 대한 통회 마음과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
성령 도우심 그리고 말씀의 통전 해석 교재와 입체적 교육 등이 합력 되어야 함



III. M교회가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방법

*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법 *

1. 베드로후서 1:5-7의 사랑에 이르는 과정을 점검하고 적용
2.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덕목을 실천하라
3. 몸에서 사랑의 원리를 배워라(에베소서 4:16)
 - 3-1) 위장의 관용 면역
 - 3-2) 다양한 지체가 한 몸 안에서 사랑하며 생명을 이룸
 - 3-3) 오장육부의 相生相剋(상생상극)의 원리
4. 자연에서 배워라
5. 성령님과 동행하라
6. 생명 사역으로 사랑을 체험하라

※ 항목별 자세한 내용 및 4~6번은 새길과새일 하온아카데미 MLA 과정에서 다룸

1) 사랑에 이르는 과정을 점검하며 적용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벧후 1:5-7)

① 경건과 사랑의 인물이 되는 과정은 거듭남 이루는 진정한 믿음 고백으로 천국 백성 되어, 이전 삶보다 선한 일 하게 되며, 세상 지식과 다른 천국 지식을 말씀 통해 배우고, 자신의 이전 모습(계획, 욕심, 교만 등)은 자꾸 절제되고, 주님 생각과 성령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이 경지 이르면 더 이상 자신이 생각과 계획대로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끄실 것을 바라며 인내한 이것이 바로 경건 또는 성화에 이르는 의미를 의미한다.

②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 최고의 신앙 경지요로망인 경건(성화)보다 형제 우애와 사랑이 더 높은 차원에 있다는 것인데, 사랑이 모든 신앙요소 중 최고.

가치임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형제 우애는 가족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타자, 전 인류를 말함



2)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덕목을 실천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 인내, 오래 참는 것 (※ 나머지 덕목 내용은 하온아카데미 MLA 과정에서 다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약 1:4)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약 1:19)

▶ 인내와 오래 참음의 의미

- (1) 남 잘못이나 허물, 실수 비판하지 않고 개선되도록,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지켜봐 줌
 (단, 잘못된 길을 가거나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선 참으면 안 됨)
- (2) 자기 계획을 조금과 욕심으로 대들지 않고, 또 당장 일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자신을 온전히 이루어 나감
- (3) 자기 말을 더디 하면서 남의 말을 잘 경청함 / 성급한 판단 안 함
- (4) 미워하고 공격해도, 손해 봐도 분 내거나 가슴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한 관계로 이끄실 것을
 바라며 인내하며 기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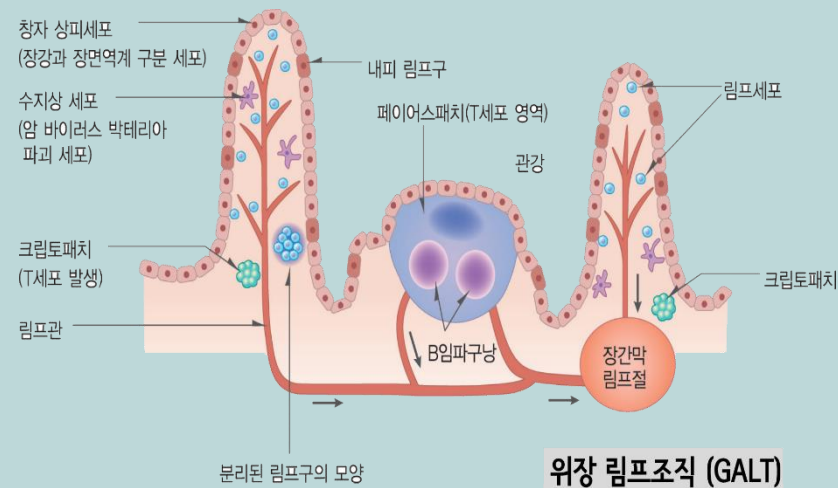
▶ 오래 참는 것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한 평소의 자세

- (1) 평소 나도 허물 많은 사람이란 생각을 가짐/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란 생각을 가짐
- (2) 당장에 연연치 않고 여유 가지고 길게 봄/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큰 결실 이루실 것 기대
- (3) 손해나 공격 받아도 그들을 공격하고 비판치 않고 주님께서 보응 또는 선한 길 이끄실 것 기대

3) 몸에서 사랑의 원리를 배워라

3-1) 사랑 - 위장에서의 관용면역

- ▶ 나와 달라 손해가 될 수 있는 이종 단백질을 싸우지 않고 무해화 하면서 자기화 하는 면역 반응. 그러나 몸에 큰 해가 되는 물질이라 판단 되면 체외로 제거함(구토, 설사 등)
- ▶ 관용면역의 성공 열쇠는 이종 단백질을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함



3-2) 사랑 - 다양한 지체가 한 몸 안에서 사랑하며 생명을 이룸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 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 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 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 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 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14~27)

- ▶ 발이 손 더러... : 전체 속에서 떼려야 떨어질 수 없다는 생각. 자기는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 금물
- ▶ 온 몸이 눈이면... : 각자의 다른 기능별로 배치. 다르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을 가져야
- ▶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 전체속의 하나라는 생각. 전체를 먼저 생각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금물
- ▶ 쓸 데가 없다... :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 자기만 잘났다는 생각은 금물
- ▶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약해서 손상 받기 쉬운 장기. 눈, 귓속 등) : 민감하고 섬세해서 손상 받기 쉽지만 더 중요한 일을 함. 약해 보인다고 무시하거나 강압적으로 누르면 안 됨
- ▶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마구 다루는 장기. 손, 발, 위장<밥통 대반란>, 허리 등)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막 대우하거나 거칠게 다루어도 괜찮을 것 같아 무리하게 쓰거나 방치함. 한 번 손상되면 큰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관리 잘 하고 귀하게 대우해줘야

- ▶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지저분한 장기. 위, 대장, 항문 등)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음 : 모양이나 기능은 아름답지 못한 것 같지만 그들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다.(위장에서 정미로운 영양분을 만들어 내고 항문에서 더러운 배설물을 내보냄으로 몸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피부 만듦) 아름답게 보이진 않더라도 아름다움의 산실임을 인식하고 귀하게 여겨야 함
- ▶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

※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 ▶ 다음 질문에 답을 하면서 몸이라는 생명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찾아볼 것
 - (1) 몸에 있는 각각의 지체가 다 필요하고 소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각각의 지체가 서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각각의 지체는 서로에게 어떤 대우를 하고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 (4) 한 지체의 고통과 영광이 모든 지체에게 돌아가는 실제적 상황을 예를 들어 보세요.
 - (5)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지체가 한 몸 안에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구현하는 자세

배타와 경쟁의식, 그리고 우열 가름이 없고,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지체라도 더 귀중하게 여기며, 각 지체는 서로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고통과 영광을 같이 받고 누린다.

3) 몸에서 사랑의 원리를 배워라

3-3) 사랑 - 오장육부의 상생상극(相生相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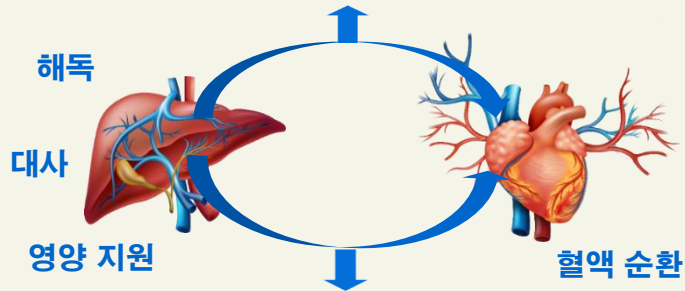
- ▶ 우리 몸에는 서로 다른 12개의 장부(6장6부. 간장, 심장, 폐장, 신장, 비장, 삼초의 6장과 대장, 소장, 위, 쓸개, 방광, 심포<心包>의 6부)가 한 공간 안에 존재
- ▶ 기능과 성격과 모양에서 하나도 같은 게 없는 이들이 한 공간 안에서 같등이나 분열하지 않고 아름다운 전인적 생명 현상을 발현하고 있는데,
그 비결은 바로 자기도 살고 전체도 사는 방법을 알기 때문
- ▶ 자기가 살아야 전체도 사는 것이기에 이기적 행동은 전체 이익을 위한 전제가 된다.
서로 다른 것이 모여 일체를 이루는 협력의 성공 모델인 이들의 공동체 생존 방식은 상생상극(相生相剋)이라는 원리이다.

※ 상생상극의 예(간장을 중심으로)

- 상생의 모델 예 : 간장과 심장 / 신장과 간장
- 상극의 모델 예 : 간장과 위장 / 폐와 간장

[상생] 1st Model – 간장과 심장

간장은 독이 없고 신선한 혈액을 만들어서 심장이 전신에 좋은 영양 혈액을 공급하도록 대사와 해독에 최선을 다한다.



간장은 심장 근육을 튼튼히 해서 평생 심장이 뛰도록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심장 근육에 영양분을 지원한다.

● 상생의 자세

간장이 심장을 돕는 이유는 심장이 약하고 불쌍해서가 아니라 심장을 도와 몸 전체가 혈액과 영양 공급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함
 심장이 약해지지 않도록 돕는 것도 있지만 심장의 장점을 격려해서 그 심장 때문에 몸이 더 강해지도록 돕는, 즉 전체를 위해 돕는다.
 동정하는 식의 도움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이 더 잘되도록 도와 결국 몸 전체가 유익하도록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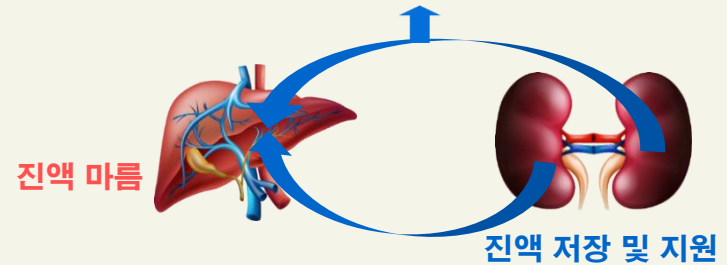
몸 사회 □ 상대방의 장점이 더 잘되도록 격려하고 도와 줌으로 몸 전체가 유익하도록 한다.

VS

인간 사회 □ 상대방 장점 깎아 내리고, 불쌍할 때 도와준다.
 □ 전체를 생각치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긴다.

[상생] 2nd Model – 콩팥과 간

간장은 공격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장기 이기 때문에 열이 많이 생겨 간장의 진액이 잘 마른다. 간장 진액이 마르면 영양 부족, 면역 해독 대사 기능 저하되어 콩팥은 간장의 진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장된 좋은 진액을 꾸준히 지원해준다.



● 상생을 받는 자세

간장은 과로, 스트레스, 각종 독성 유입 등으로 간장이 힘들어지면 자신의 약함으로 전체가 나빠지지 않도록 기꺼운 마음으로 신장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실제로 간경화, 간암이 걸려도 콩팥이 튼튼하면 회복이 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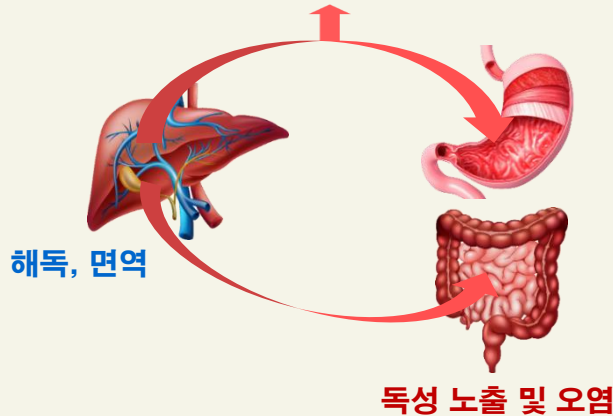
몸 사회 □ 자신의 약점 때문에 전체가 문제되지 않도록 드러내어 도움을 받는다.

VS

인간 사회 □ 자신의 약점은 철저히 숨기며 도움 받기를 싫어한다.

[상극] 1st Model – 간장과 위와 장

위장에 형성되는 음식 부패 물질, 유입되는 독성들, 숙변 등으로 인한 오염 상태를 간장의 강한 해독과 면역 능력으로 공격한다.



● 상극의 자세

위장은 각종 부패물질로 손상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
간장은 위장 자체가 아니라 위장에 형성된 독소 환경을 상극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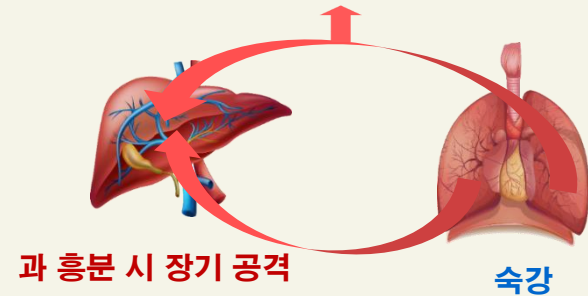
몸 사회 □ 상대방 약점을 비판하지 않고 그 문제가 잘못되지 않도록 충고하여 견제하여 보완해준다.

VS

인간 사회 □ 상대방 약점을 비판한다.
□ 상대방의 약점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

[상극] 2nd Model – 폐와 간장

간장은 강하고 공격적인 속성 때문에 너무 흥분되면(술, 분노, 과도한 지방 음식, 과로 등) 주위 장기 공격하고 많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 간장은 이러한 부정적 속성을 조절하기 위해 폐로부터 상극(견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 상극을 받는 자세

간장이 폐로부터 견제를 받는 것도 자신이 너무 강해져 이웃 장기를 해칠까 해서 기꺼이 받는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교만한 기운을 폐의 숙강 기능(肅降, 열성기운이나 풍 기운이 머리로 올라오는 것을 아래로 내려 보내는 기능)으로 조절 받는다.

몸 사회 □ 자신의 강함을 남용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견제 받음으로 전체를 살린다.

VS

인간 사회 □ 자신의 강함을 과시한다.
□ 자신이 강해지기 위해 남을 해친다.
□ 남에게 억제 받기를 싫어한다.

“오장육부와 인간사회의 상생상극 비교”

자기 위주의 상생상극

- 피아간 이분법적 적용
- 자기 위주의 상생상극, 자기에 도움 되면 가까이 하고, 도움 되지 않으면 불통, 공격, 제거
- 자기만 잘되면 됐지, 전체는 상관없단 생각
- 상대방의 장점은 깎아 내리면서 상대방이 잘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
- 상대방 허물이나 문제가 있으면 기회다 싶어 험담, 비판 등으로 공격하면서 무너뜨리려 한다.
- 자신의 약점은 남이 모르도록 철저히 숨기면서 보신주의로 행동한다.
- 편견과 분열, 갈등과 양극화

5장6부의 상생상극

- 피아간의 통전적 협력
- 다른 기관들이 항상 소통하면서 서로 돕고, 혹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 전체 속의 자기와 자기 통한 전체를 생각
- 상대방의 장점이 더 잘 되도록 격려하고 도와줌으로써 상대가 더 강해져서 강한 전체로 이어지게 함
- 상대방 허물이나 문제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잘 못되어 전체가 손상될까 비판보다 보완해 준다.
- 자신의 약점 때문에 전체가 문제되지 않도록 감추지 않고 드러내어 고치거나 도움을 받는다.
- 균형과 조화 이루며 전인적 생명성 구현

도와 주는 것

남의 장점이 더 향상 되도록
중보한다

도움을 받는 것

자신의 약점을 찾아
이를 감추거나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고 노력을 하거나
멘토를 통해 보완한다

견제를 하는 것

남의 약점을 비판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이 단점이
잘못되지 않도록 충고하고
견제로 중보한다

견제를 받는 것

자기 장점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견제 세력을 키우고
따른다



IV. M교회가 연구하여 세운 통전생명관을 이루는 방법

1. 주님의 방식을 배워라

- ▶ 악을 선으로 갚으심
- ▶ 고난과 시련을 소망과 기쁨의 장으로 바꾸시고 역전과 협력의 선한 열매를 거두심
- ▶ 악과 죽음의 심판 높에서 구원으로 이끄시고 오히려 선과 생명으로 만드심
- ▶ 강도, 창녀, 세리 같은 악한 자를 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심

2. 복음에 대한 통전적 적용

- ▶ 주님의 복음의 열매는 통전적 생명 효과가 있음. 복음은 인간의 영을 사탄의 영으로부터 구원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의 정신적 고통을 평화와 기쁨으로 바꿔주며, 육신의 그릇된 관리와 그로 인한 질병에서 건전하게 이끄는 능력이 있음
- ▶ 한국교회도 이분법적 함정에 빠져 영혼 구원에만 치중된 일면적 신학에 치우쳐서는 안 됨
- ▶ 그리고 인간 영혼 구원에 치중하면서 성(聖)과 속(俗)을 구분하고 교회만 구원의 방주로 생각하고, 교회 성장만을 최고의 과제로 추구해서는 안 됨
- ▶ 통전 신학은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전인적 생명 회복과 세상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지향하는 신학임을 유념해야 함

3. 통전생명관을 따랐을 때 나타나는 생명적 양태

- 1)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다 식의 이분법적 분리가 아니라 악이 선 될 수 있고, 선도 악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식함
- 2) 말씀은 영, 혼, 육 모두에 통전적 영향을 주는 것임을 알게 됨
(영이 육과 정신에, 육이 영과 정신에, 정신이 영과 육에 영향 주는 메커니즘 알게 됨)
- 3) 서로 다른 가치관, 생각, 주장 등을 배타하거나 분리 않음 (여야 간, 노사 간, 진보 보수 간 등)
- 4) 증상만 치료하지 않고, 배경도 치료하는 통합의학이 구축됨
- 5) 복음을 영 구원에만 치중하거나 제한하지 않음
- 6) 말씀 교육을 지식 위주로 하지 않고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 영,혼,육 모두가 변화되는 길을 이끄
- 7) 사회 통념, 사람들 정한 윤리, 도덕 기준의 노예 되지 않고, 이를 뛰어 넘는 안목을 갖추게 됨
- 8) 사회 통념이나 윤리, 도덕기준을 뛰어 넘는 안목 갖추도록 함
 - ▶ 남이 실수나 잘못 저질러도 비판, 정죄를 하지 않고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 ▶ 좋다, 나쁘다 등과 같은 감정을 초월해서 모든 상황을 관조하게 되며
 - ▶ 성급하게 시시비비 판단하지 않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함으로 지켜볼 수 있음



V. M교회가 양육하고자하는 미디어이터가 되는 방법

1. 서로 다른 것을 융합하는 지혜 함양

- ▶ 서로 다른 이념, 주장, 이익 등을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융합하는 지혜가 있어 국가, 사회, 교회 속 갈등을 해소하며 선(善)을 이루어 낸다.

2. 통전생명관을 함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

3. 하나님의 선하신 뜻(비전)을 부여받고 이를 성취하는 적극적 동력 지님

- ▶ 상기의 자질을 갖춘 미디어이터는 갈등과 분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비전)에 따라 이루어나가기 소망하며, 그 뜻이 성취되기까지 어떠한 상황에도 멈추지 않고 전진한다.